

SPORTS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KBO 데뷔 첫 홈런’ KIA 위즈덤 “압박감 많았다”

‘김도영도 없는데...’ 박찬호도 부상
도루 과정서 통증... 무릎 염좌로 휴식

KIA타이거즈가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 김도영에 이어 박찬호가 무릎 염좌로 발목이 잡혔다. KIA는 26일 “전날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한 박찬호가 무릎 염좌 소견을 받았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엔트리에서 말소했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의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경기에서 1번타자 겸 유격수로 출전했다.

KIA가 0-3으로 뒤진 1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박찬호는 우익수 앞 안타를 때려냈다. 그는 곧바로 2루 도루까지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다시 베이스로 복귀한 박찬호는 후속타자 위즈덤의 땅볼로 3루까지 진루했다. 하지만 통증을 참지 못하고, 대주자로 김규성이 투입됐다.

박찬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MRI 검사를 받았고 무릎 염좌 소견을 받았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크지 않다. 한동안 결장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도영은 허벅지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도영은 지난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KBO 리그 개막전 경기에서 2번타자 겸 3루수로 출전했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초 1사 상황. 김도영은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1루 베이스를 돌아 다시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MRI 검사를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았다. 김도영의 정확한 복귀 시점은 재검진을 한 후 정해질 예정이다.

시즌 초반부터 시합대에 오른 KIA가 위기를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키움히어로즈전서 4회말 썬기 투런포 폭발
멀티히트·수비 등 활약... “이제 달라질 것”

KIA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침묵을 깨고 도약의 신호탄을 쏘았다.

위즈덤은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2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1홈런) 3타점으로 맹활약하며 KIA의 11-6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MLB 88홈런” 거포로 주목받았던 위즈덤은 올해 KIA로 합류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범경기에서 7경기 18타수 4안타(1홈런) 3타점 타율 0.222 OPS 0.777로 아쉬운 성적표를 작성했다. 이어 지난 22~23일 열린 NC다이노스와의 KBO 정규리그 개막 2연전에서는 단 하나의 안타도 생산하지 못했고, 볼넷 3개만을 끌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던 위즈덤은 25일 경기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KIA는 이날 김도영의 부상 공백으로 타순을 조정. 위즈덤을 2번 타자로 올렸다. 경기 초반 많은 득점을 뽑아내기 위해 바뀐다는 게 이병호 감독의 설명이다. 또 기존 1루 수비로 출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위즈덤을 3루수로 배치했다. 위즈덤이 메이저리그 당시 3루수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기에 이해할만했다.

이 선택은 적중했다. 위즈덤은 1회말 땅볼과 3회말 뜬공으로 몰라났지만, 4회말 희생의 아치를 그렸다. 2사 2루에서 타석에 올라 상대 4구째 144km 직구를 때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폭발시켰다. 1볼 2스트라이크로 불린 상황에도 집중력을 발휘하며 KBO 리그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 홈런으로 KIA는 7-3까지 앞서나갔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위즈덤은 6회말 뜬공으로 몰려난 뒤 7회말 1사 1·3루에서 좌전 안타를 터트리면서 데뷔 첫 멀티히트까지 쏘아 올렸다. 특히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더했다. 5회 상대 푸이그의 강력한 타구를 백핸드로 잡아 처리했고, 이주형의

땅볼 역시 정확하게 수비했다. 공·수에서 완벽한 활약을 펼친 위즈덤의 활약에 힘입어 KIA는 11-6 승리를 거뒀다.

위즈덤은 이날 경기 후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 타이밍이 계속 뒤에서 맞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치려고 했다.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며 “수비 역시 3루수를 연습한 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늘 상당히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홈런 타구에 대해서는 “상대가 높은 직구를 던진 것 같은데, 배럴 타구를 만들기 상당히 좋은 공이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타구가 멀리 간 것 같다”며 “사실 다른 곳에서 압박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많이 압박감을 느꼈는데,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위즈덤은 이날 활약이 신인 박재현의 조연 덕분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다른 것보다 박재현이 찾아와서 타이밍 좀 잘 맞게 타격하라고 조언해줬다.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떠졌고, 큰 반향을 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팬들의 응원 역시 큰 몫을 차지했다. 위즈덤은 “KIA 팬들의 응원이 진짜 열정적이다. 그 열기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도약의 시점을 알린 위즈덤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위즈덤은 “KBO 리그 투수들은 정말 많은 구종을 던지고, 상당히 흥미롭다. 그런 부분을 깨닫고 멀리 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제 부담감을 느낄 건 다 느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홍명보호, 요르단과 1-1 무승부... 월드컵 조기 확정 실패

전반 5분 이재성 선제골...공 점유하고도 추가 득점 못하다 동점골

6월 이라크와 원정, 쿠웨이트와 홈 경기서 북중미 직행 최종 평가

홍명보호가 요르단과 비겨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에 실패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만든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요르단과 1-1 무승부에 그쳤다.

4승 4무 무패를 기록한 한국은 조 선두(승점 16)는 유지했으나 후순위 팀들과 격차를 충분히 벌이지 못해 6월 A매치 기간 치르는 3차 예선의 마지막 2연전에서 본선행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오만과의 7차전(1-1)부터 홈 2연전을 거푸 아쉬운 무승부로 끝낸 한국은 6월 5일 이라크를 상대로 원정 9차전을, 닷새 후인 10일 쿠웨이트를 상대로 홈 10차전을 소화한다.

요르단은 승점 13으로 2위에 자리했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이라크가 승점 12로 3위다. 3차 예선 각 조 1~2위는 북중미 직행 티켓을 가져가며, 3~4위는 4차 예선을 치러 본선 진출에 재도전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64위

요르단을 상대로 통산 4승 4무 1패를 기록 중이다.

홍 감독은 손흥민(토트넘)을 최전방에 세우고 2선엔 왼쪽부터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 이동경(김천)을 배치하는 4-2-3-1 전술을 들고 나왔다.

오만전 무승부의 아쉬움을 지우겠다는 듯, 초반부터 의욕적으로 공격에 나선 한국은 전반 5분 만에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뽑았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열린 코너킥에 문전으로 쇄도하던 이재성이 왼쪽 다리를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다.

황희찬, 손흥민 등이 끊임없이 상대 뒷공간을 노리며 우세하게 경기를 펼쳐나갔던 한국은 전반 30분 상대 역습에 동점골을 내줬다.

이로써 한국은 5경기 연속으로 실점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공을 소유하며 득점 기회를 모색하고, 요르단은 알타마리, 알마르디 등 빠른 전방 자원을 앞세운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양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기대한 골은 터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후반 47분 손흥민을 빼고 오현규(헝크)를 투입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으나 결승골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연협뉴스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경기 후반 손흥민이 공격 찬스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경, 여자부 정규리그 MVP 3연패할까

남자부는 허수봉·레오·비에나 3파전

프로배구가 포스트시즌에 들어가면서 2024-2025시즌 정규리그를 빛낸 최고의 선수 영예를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5일 오후 6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영플레이어상, 베스트 7 등 주요 부문 수상자를 뽑는 투표를 마쳤다.

투표 결과는 시즌이 모두 끝나고 4월 14일 열리는

V리그 시상식 때 공개된다.

배구 취재 기자단 투표로만 선정되는 남녀 MVP 중 여자부는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유력하다.

김연경은 득점 7위(585점), 공격 종합 2위(46.03%), 서브 8위(세트당 0.230), 리시브 효율 2위(41.22%)에 오르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공격 부문 1위 분야는 없지만, 아웃사이드 히터이면서 득점은 국내 선수 중 1위이고, 수비 부문에서도 활약하며 소속팀의 정규리그 1위에 앞장섰다.

연협뉴스

광주체고, 전국대항전 상위 입상 ‘정조준’

제39회 장관기 대회 결단식

내달 3~5일 대구일원서 개최

13개 종목 165명 선수단 참가

광주체육고등학교가 26일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하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백기상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문종민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이준재 광주체고 교장, 김병규 광주체고 총동문회장, 광주체고 감독과, 지도자 임원 및 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체육고등학교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항전은 오는 4월 3~5일 3일간 대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남·여 각각 13개 종목에 걸쳐 펼쳐지며, 선수영 종목은 3월 31일~4월 2일 사전경기로 치러진다.

광주체고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육상 등 13개 종목, 31개 종별에 선수 165명(남 107·여 58명), 감독과 10명, 코치 24명 등 총 199명이 출격한다.

광주체고는 지난해 울산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최고 대항전에서 금 14·은 15·동 28개 등 총 57개 메달 획득과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대회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는 각오다.

먼저 사전경기인 민수영에서는 김지은(3년)이 표면 50m·100m에서, 윤만니(3년)가 짜면 1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육상에서는 400m 장근호(3년), 110m 허들 박태연(2년), 높이뛰기 윤준호(3년), 멀리뛰기 신은상(3년), 해머던지기 장성연(2년)이 입상을 노린다.

레슬링은 그레코로만형 -51kg급 박준형(2년), 자유형 -57kg급 박인성(3년)·-97kg급 이재혁(3년)이 금빛 메달에 도전한다.

양궁은 60m 남지현(3년), 50m·70m 박주혁(2년)이 금빛 시유를 겨냥한다.

체조에서는 도마·마루 김재현(3년)과 여자 도마 홍성경(2년)이, 태권도에서는 웰터급 김태유(3년)와 라이트헤비급 최진우(2년)의 메달이 기대된다. 이외에 수영 자유형 200m 신하울(3년), 복싱 -56kg급 이민호(1년), 유도 -57kg급 조효진(2년)이 입상을 노린다.

입금회 교장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매일 이른 시간과 밤늦게까지 훈련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체육고등학교는 26일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했다.